

##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다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 2. 아침묵상

여름동안 아침묵상을 쉬기로 했습니다. 아침묵상은 9월부터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름동안에도 여러분의 삶의 예배와 경건생활이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지속됨으로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중보합니다.

## 3. 뉴저지 어머니 학교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오프라인 상에서 갖게 되는 뉴저지 어머니 학교를 가을에  
저희 교회 건물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함께 중보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차후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 지난 주 (7/9)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1,010.00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최은숙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고후 6:3-6:13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마음이 좁아질 때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 주일대표기도

7월 23일	7월 30일
유영환	최빅토리아

###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아침묵상	(화-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 아름답다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눈에 보이는 것에 열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리 속이 꽉찬 사람도 겉이 빈약해 보이면 외면당하기 쉽습니다. 저는 한 국을 떠난지 어느새 18년이 되었지만 가끔 TV에 나오는 일반인들을 보면 다들 하나같이 연애인 같습니다. 얼마나 자신을 잘 꾸미고 사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것이 꼭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기본욕구조차 금욕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외면 받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외적으로 화려해 지기 시작한 후부터 교회는 내면적으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쇠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내면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비단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린도교회를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이미 내면적으로 타락하고 궁핍하면서도 외면적으로만 자신을 치장하고 꾸미는 교회와 교인들에 대해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거침없이 그들의 민낯을 고발했습니다. 바울의 눈에는 그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모든 것을 구제하고 헌신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산을 옮길만한 믿음이 있어 보여도 다 가짜 일 수 있다. 다 허상일 수 있다. 너희 안에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는다면...

교회가 세상을 닮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줄 아십니까?

영혼에 대한 사랑보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많음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더 각박해지고 급격하게 변해간다고 할지라도 절대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내면의 성숙이며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Doing이 아니라 Being의 문제입니다.